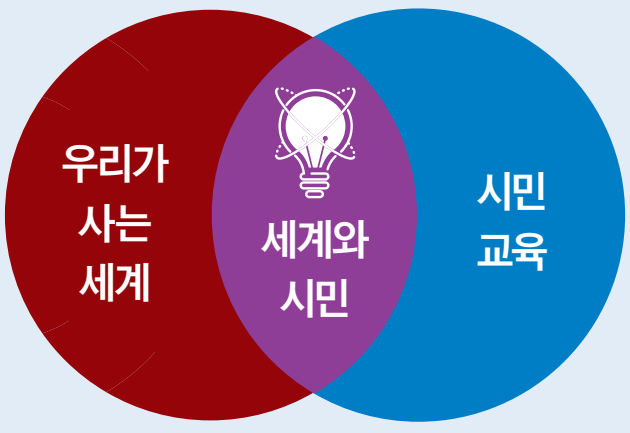
19학번 교양필수 4과목만 …평가방식도 역량 중심으로

〈이전 5과목〉

- 우사세는 향후 5년간 미수강, 재수강생을 위해 경과규정 과목 유지
- 시민교육은 세계와 시민으로 대체



이다빈 기자 davin311@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재도약 TF팀(재도약 TF팀)'의 교육과정 및 교과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을 배운다. 개편안은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후마 재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 개편 설명회'에서 고지됐다. 필수교양 과목 일부 개편, 평가방식 변경, 분과위원회 운영 등이 개편의 주요 골자다.

후마 재도약 TF팀은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지난 5달 동안 15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후마 발족 이후 8년에 가까워지며 학습 중심의 교육을 개선할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학습 중심 교육은 과밀한 강의환경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학생 스스로 연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액션플랜'이란 이름으로 '후마 교양교육 혁신 방안'을 시행하며 학사 운영 개선 및 교과 운영 개선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그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 중핵강좌 정원이 45명에서 35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평가 방식 전환, 교육 방식 개편, 교과목 개편이란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3가지 문제가 여전히 변화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과 상통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문재(서울캠 후마) 교수는 세계적 추세를 바탕으로 한 대학 교육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미국 유수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은 교육 재정비임을 강조했다. 교육은 초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기에 학벌이 아닌 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재도약 TF에 의해 기존 교과목이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필수교양인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시민교육', '글쓰기1·2' 총 5과목은 4과목으로 축소·조정되고 강좌 당 정원은 25명으로 줄어든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우선 교육 내용과 명칭이 눈에 띈다. 큰 변화는 우사세의 내용과 시민교육 내용이 병합돼 '세계와 시민'이란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세계와 시민 과목은 시민권과 더불어 기후변화, 전쟁 및 기아 등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전 지구적 이슈에 근원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해당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우사세 내용 중 일부는 인가탐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군휴학 등으로 인한 미수강, 재수강을 대비해 향후 5년간 우사세는 유지된다. 시민교육은 모두 세계와 시민으로 대체된다.

글쓰기 교과목은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다. 글쓰기1은 '성찰과 표현', 글쓰기2는 '주제연구'로 변경된다. 성찰과 표현은 교재개편을 진행 중이다. 주제연구는 맞춤형 학습 및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관심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탐은 주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빅문 역시 내용 상 개편은 없다. 다만 서울캠에서 지난 1학기 도입한 플립러닝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강의 수용 인원은 서울캠 40명, 국제캠퍼스 7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빅문을 제외한 필수교양 교과목은 모두 강좌당 수강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필수과목을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한 결과다.

설명회에서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30명 안팎의 고등학교 교실에 있다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대형강의를 마주하게 된다"며 "신입생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을 뿐더러, 글쓰기 강의 수강생을 20명으로 제한하자 학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경험을 들었다. 이어 "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도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기존의 성적 평가에서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역량 중심 평가는 학점 지상주의에서 탈피해, "어떻게 하면 A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공부해야할까?"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평가가 결과가 아닌 또 다른 학습의 시작이라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대 혹은 절대평가가 아닌 자기평가 혹은 동료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지표 개발에 버지니아대학 류태호 교수의 저서 〈성적 없는 성적표〉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 10대 역량'을 참고할 예정이다. 역량평가는 다시 말해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능력들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스템이다. 바뀐 평가 방식 적용은 2019년도 1학기 전면 실시가 목표다.

교양 교과 과정을 8개 분과로 개편해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8개 분과엔 성찰과 표현, 인가탐, 빅문, 세계와 시민, 주제연구, 배분/자유이수영역 등이 포함된다. 재도약 TF팀에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주제 선정, 교재 개발 및 정기적인 교·강사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에는 분과별로 2~3명의 학생위원이 참석해 교과 내용 및 수업방식 개편 논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단과대별 추천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뒤 학생 시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2019년 2월이 종료 시점이다. 그러나 교과 단위별 학생위원은 유지돼 지속적으로 학생 측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강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신충식(국제캠 후마) 교수가 "새로운 교과에 교수자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우사세를 보완하기보단 대규모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 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 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재도약 TF팀 우기동(교육대학원 교수) 팀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제적 문제에 분석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사세를 보완하기보단, 시민교육을 병합해 '세계와 시민'으로 개편했다"고 답했다.

학생의 시각에서 개편을 바라본 질문도 있었다. 서울캠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박범근(정치외교학 2015) 사무국장은 "학생의 입장에선 교수 간 강의력 차이가 큰 문제"라며 "교과 개편을 시도하면서 교수 역량 강화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빅문 도입 초기의 혼란을 언급하며 "도입 직후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범시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교수 간 편차 문제는 방학 중에 고려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한편 재도약 TF팀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019학년도 2월에 모든 활동이 끝난다. 현재 교육과정 개편은 모두 완료하고 개편안에 대한 행정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018-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8. 3. 1 ~ 2018. 12. 15 기간 내 취득 실적 (단, 2018-1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 • 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 •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취득 원성적 2.0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의약학계열 15학점) • 신청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30(일) 24:00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8-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버튼 클릭, 완료 • 제출서류 : 온라인 대체,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함) ※ 포인트 관리 : 학생은 본인의 실적을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역량관리에 등록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역량관리⇒개인역량 입력)
포인트 인정 처리	• 단과대학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지급일 : 2019. 2. 8.(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유의사항		
	학업역량	• 소속 단과대학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 • 단체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n 로 계산(장학금은 백원 단위에서 절사) •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 • 취득(게재)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기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
	사회봉사역량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증관리(vms.or.kr)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8시간 인정 •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 학점 인정 봉사 활동 - 교내·외 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 • 학기당 헌혈증 2장 인정(1장에 5,000포인트)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 • 봉사활동 인정 기간 : 2018. 3. 1 ~ 2018. 12. 15
	국제화역량	• 영어항목 : 토익, 토플, 텝스, G-TELP, 오픽(OPICs), 토익스피킹, IELTS 중복 인정 불가(택1) / 스페인어항목 : DELE, FLEX 중복 인정 불가(택1)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 시 2회까지 신청 가능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 당 1회만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8. 3. 1 ~ 2018. 12. 15 기간내 취득한 성적증명서
	기타역량	•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IT, 한국사, 한국어 항목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향상 시 2회까지 인정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 • 자격증 인정 기준 : 2018. 3. 1 ~ 2018. 12. 15 내에 취득한 자격증

[교내·외 봉사 인정기관]

구분	기관명	봉사활동	비고
교내	국제교육원	한국어 도우미	※ 사회복지 자원 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하는 사회 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도 제출 가능
	미래문명원	거교적 행사(Peace BAR Festival, 미원렉처, 석학초청특강 등) 자원봉사,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네오프런티어 장학생 봉사	
	지구사회봉사단 (GSC)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해외사회공헌 프로그램, 민관학협력 프로그램, 학생단체운영 프로그램	
	학생지원센터	경희봉사단, 의료봉사, 자연재해 복구활동, 대동제 기획단	
교외	아동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 대안학교, 어린이집 • 건강 가정지원센터	
	장애인	• 장애인 종합 복지관 • 시각 장애인 복지관 • 특수학교 •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 점자 도서관 • 장애인 시설 • 자립생활 지원연대	
	노인	• 노인 종합 복지관 • 노인 요양시설 • 노인 주간 보호시설 • 노인 대학 • 시니어 클럽	
	시민 단체	• 환경 단체 • 경제 및 소비자 단체 • 윤리 및 시민교육 단체 • 여성 단체 • 법률 단체	
	기타	• 쉼터, 헤비타트 • 성폭력 센터 • 이주노동자진료센터(라파엘클리닉) • 혈액원 • 노숙인 주간이용시설 • 초·중·고교(교육활동 봉사)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